보도자료

돌봄을 받는 앨버타인을 위한 보호 강화

2026년 11월 4일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돌봄을 받는 앨버타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책임성이 개선되며, 자비로운 개입(compassionate intervention)이 지원됩니다.

법안 제 39호, 즉 *2026년 보건법 개정법(제2호)*(*Health Statutes Amendment Act, 2026 (No. 2)*)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돌봄 환경에서 보호와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을 받는 앨버타인의 안전, 존엄성,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 보험이 적용되는 검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보건 법령을 현대화하며, 앨버타 의료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앨버타인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안전과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변화는 보호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며, 우리 가족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스틴 라이트(Justin Wright), 일차 및 예방 의료 서비스부 장관

돌봄을 받는 앨버타인에 대한 보호 강화

돌봄 대상자 보호법(*Protection for Persons in Care Act*) 개정안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 중 어느 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하고, 학대 신고 조사, 이의 제기, 법규 준수 및 집행 절차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대에 대한 우려가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하여, 앨버타인들이 돌봄 대상자들이 존엄과 존중 속에서 대우받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존의 보호 장치와 이의 제기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약한 앨버타인을 위한 돌봄 강화

자비로운 개입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앨버타에서 고안된 접근 방식입니다. *자비로운 개입법*(*Compassionate Intervention Act*)에 따라 가족 구성원, 후견인, 의료 전문가, 경찰 또는 치안 담당관은 중독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된 사람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안은 신청 및 심리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지원하며, 임상적 유연성을 높이고,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존의 보호 장치가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7년 봄에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면 자비로운 개입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일관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개정안은 승인된 병원 내 보건 서비스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자의 권리와 보호 장치를 지키면서 환자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보도자료

"우리는 심각한 중독이나 약물 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앨버타인을 위한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비로운 개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장 심각한 중독을 겪는 앨버타인이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조율된 일관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릭 윌슨(Rick Wilson), 정신건강 및 중독부 장관

검사 서비스에 대한 공적 재원 명확화
앨버타 정부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서비스가 계속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의료보험법*(*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Act*, AHCIA) 개정안은 보험 적용 진료 및 의사 의뢰 진료에 대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한편,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와 관련된 검사 비용은 민간 클리닉이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가보험 상품에 대한 요건 마련
또한 AHCIA 개정안을 통해 공공 시스템 이외의 선택적 진료를 받기로 한 사람들의 자가보험 설계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규제 수단이 정부에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여하는 의사와 보험사의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 마련이 포함됩니다. 앨버타인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를 지금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가보험 의무 가입이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가보험 설계를 통해 선택적 진료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앨버타인을 위해 명확한 규칙과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공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에 대한 앨버타인의 접근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에이드리아나 라그레인지(Adriana LaGrange), 병원 및 외과 의료 서비스부 장관

추가 개정안은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을 개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개정 조항을 폐지하여, 공중보건 감독관의 역할이 앨버타 보건 서비스(Alberta Health Services)에서 앨버타 일차 진료 기관(Primary Care Alberta)으로 이관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 앨버타인의 의료 접근성 확대
-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 지원

보도자료

미디어 문의

제이 랭(Jaye Lang)

jaye.lang@gov.ab.ca

780 427 3665

일차 및 예방 의료 서비스부 언론 비서관